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오 제 직

## 다시 다가서는 중국을 보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유대를 맺어왔다. 육로를 통한다면 평안도를 경유하겠지만, 바닷길 또한 중요한 교통로였다.

특히 남중국과 교류할 때는 황해를 통한 바닷길이 많이 이용되었다.

당나라와의 교역 전진 기지였던 당진포(唐津浦)는 바로 그런 연유에서 생겨난 지명이다. 당진포 외에도 내포 해안에는 과거 중국과의 교류를 입증해주는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해미 대티고개에 있었던 안흥정(安興亭)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였던 객관(客館)이었다. 자료에는 남송(南宋)의 사신 서경(徐兢)이 황해를 건너 내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의 항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황해를 통한 양국간의 문물 교류는 대한제국 때까지 활발히 이어졌다. 서산에 형성되었던 차이나타운은 이러한 시점을 말해주는 좋은 증거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 정세의 변화로 중국과의 교류는 중단되었고, 중국은 한때 우리에게 잊혀진 대륙으로 남아 있었다.

### 1억의 중국 관광객

그렇지만, 역사는 다시 반전되어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기회의 나라로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이미 대세가 되었으며, 머지 않은 장래에 중국의 영

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인천은 대 중국의 관문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1998년 중국 정부는 한국을 국외여행 자유국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개최와 때를 같이하여, 중국 내부에 연예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류(韓流) 열풍이 일면서 중국 관광객의 우리나라 방문과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관광객 대부분은 인천공항 또는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동대문시장, 에버랜드, 용인 민속촌 등을 방문하고 부산, 경주와 제주도를 경유하는 것이 중국관광객의 가장 일반적인 코스이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편의시설, 그리고 쇼핑·오락 등이 대부분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경부의 축(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를 비롯한 여타의 지역은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관광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충남의 경우 아산온천, 보령,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는 경우가 간혹 있을 뿐이다.

세계관광기구(WTO)는 중국인의 해외여행객이 한 해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방문객의 비율 또한 연간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중국과의 교류창구였던 충남 서해안, 내포(內浦)의 잠재력에 눈을 돌

려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 내포 해안을 관광교류의 창구로

내포는 백제이래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통하던 관문이었다. 태안·서산·예산 등지의 마애불은 남중국의 영향을 받은 유적들이다. 이제 다시 중국과의 근접성, 그리고 당진항이라는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중국관광객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내포에서 시작하여 백제의 고도인 공주·부여를 연계시키는 관광코스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령, 안면도, 아산 등의 기반여건을 활용하고, 삼교호 합성박물관, 대천 해수욕장, 안면도, 천수만, 금강 하구언 등지에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금산 인삼, 보령 머드 화장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서해안시대에 상응하는 전략 가운데에는 이처럼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통한 교류의 확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인에게 친숙한 충청남도 건설은 이제 우리 앞에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 백제문화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얼마 전 국립공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백제 금동불상(국보 제247호)이 도난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금동불상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이 사건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이 불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며, 또한 큰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관심의 부족이 오히려 이러한 사고를 불러오지나 않았나 반성해 볼 일이다.

이 금동불상은 백제시대 수도였던 공주의 의당면 송정리 절터에서 출토된 불상으로, 백제 불교조각의 정수(精髓)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문화재를 흠친 범인들이 백제문화재의 우수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 백제문화 연구 더 투자해야

학문적으로 백제문화가 우수하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는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논의일 뿐이지 실상 일반인들에게까지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다만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고, 현존하고 있는 백제 문화재의 정비·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 우선 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는 여전히 배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으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문화재가 쏟아져 나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움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시 침묵 속으로 잦아들고 만다.

백제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이 남긴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있는 이들은 흔치 않다. 우리가 백제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형적인 정비에 치중할 경우 오히려 문화재의 경제적 가격만을 부각시켜 도난사고의 표적이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백제 문화재의 정비·복원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 문화재의 활용부분에는 소홀한 감이 있다는 점이다. 이제 문화재 정책은 단순한 연구·보존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출과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 지역사회가 보유한 문화적 자산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동질성을 통한 사회통합,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정 문화자산이 타 지역에는 없어 그 지위가 독점적일 때 그 효용성은 더욱 크다. 충남의 경우 백

제시대 문화유산은 그러한 의미에서 주목된다.

### 문화재 도난사건 전화위복 삼아야

우리가 말로만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복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백제문화가 창조적인 지역문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백제 문화재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21세기 고부가 가치산업인 관광산업에 먼 후대까지 활용하면서 우리 역사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공주박물관 사건을 통해 백제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형적인 정비·복원 중심의 문화재 정책도 변밀한 재검토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 자린고비정신으로 환경사랑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두쇠하면 자린고비(玆吝考妣)를 떠올린다. 자린고비 선비는 종이가 아까워 글씨가 써 있지 않은 책의 여백을 아껴두었다가 조상님 제사모실 때 단정히 오려내어 축문과 지방(紙榜)을 쓴다. 이처럼 지방 쓰는 종이를 아끼고자 지방에 기름을 절여 두고두고 쓴다해서 나온 이름이 바로 자린고비가 되었다.

자린고비와 관련해 들려오는 이야기는 집안마다 조기를 걸어놓고 밥을 먹을 때마다 쳐다보는 것이다. 먹지는 않고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근검정신을 느낄 수 있는 한 장면이다.

### 조상님들 환경보호 실천

우리나라의 법도 있는 집안에서는 자손 대대로 전하는 가훈이 있고 그 가훈 가운데에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껴 쓰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 많이 나온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빨래는 흘러가는 냇물에서 하지 말고 반드시 샘물을 퍼다가 뜰 안에서 해야한다. 왜냐하면 냇물은 유기물이 많아 곡식을 키우는데 좋은 거름이 되므로 두엄이나 퇴비에 버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갈퀴로 나무하다 망가지거나 부러지면 그대로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나무 조각으로 이쑤시개를 만들어 쓰되, 한번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라 양쪽으로 깎아 쓰면 하나도 한 열흘은 더 썼다. 또 오줌이 마렵다고 아무 곳이나 누는 것

이 아니라 참았다가 집안의 갯간이나 벅짚에 누도록 한다. 이것은 좋은 거름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서양의 구두쇠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사람은 알파공인데 몰리에르의 유명한 희곡 〈수전노〉의 주인공이다. 그는 구두쇠처럼 연상되는 이름 속에서도 근검절약의 이상적인 녹색소비자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대의 대표적인 구두쇠 환경실천 사례로는 손을 씻거나 세수할 때 손바닥이 잠길 만한 분량의 물을 세숫대에 받아서 쓴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하수는 그냥 버리지 않고 걸레를 빨 때 또다시 사용한다. 손님이 와서 차 대접할 때는 종이봉지에 든 1회 1인용 홍차를 사용하되 한 봉지로 석 잔의 홍차를 우려낸다.

수세식 변기에 익숙한 아이들의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자녀들의 배설 시간대를 동시에 잡도록 버릇 들인다. 수전노의 주인공이 10명의 손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치를 때에도 8명분만 준비하여 음식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가르친다.

###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습관 길러야

이처럼 우리 선조들이나 서양에서는 어려서부터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습관을 체질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서양문화를 받아들일 때 잘 익은 전통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만 번지

르한 껌데기 소비문화를 수용하여 쓰레기를 양산해내는 대량 소비국으로 자리 매김 된 것이 안타깝다.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알고 환경보호를 위해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운동을 벌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운동이 각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 속의 실천에 어느 정도 각인(刻印)되고 있느냐 하는 여부이다.

우리 조상님의 좋은 환경전통이나 서양에서 비롯된 녹색소비자 운동이 환경보호라는 맥으로 여기고 훌륭한 가풍으로 정착시키는 운동을 펼쳐 가는 것이 환경실천의 첫걸음이다. 자린고비의 환경사랑 실천을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의 환경사랑 실천을 되새겨 볼 일이다.

## 다시 찾은 자부심, 鷄龍山 天壇

백두에서 지리까지 뻗은 한반도의 등뼈를 白頭大幹이라 한다. 남으로 달리던 큰 산줄기는 곳곳에서 가지를 쳤고, 무주 덕유산에서 한 갈래가 갈려서 북쪽으로 금강을 향하여 치받아 오른다. 이 산줄기를 우리 선조들은 錦南正脈이라 하였다. 그리고 덕유산에서 뻗은 줄기는 도중에 대둔산이라는 절경을 빚었고, 금강에 다다라서 마지막 용틀임을 하였다. 그곳이 鷄龍山이다.

산맥이 강에 맞닿는 곳이 명당이라고 믿었던 우리 선조들은, 파리를 틀 듯이 정기를 품은 그 산자락에 큰 고을을 두곤 했다. 대동강의 평양이 그러하고, 한강변의 서울 또한 마찬가지이다. 백제의 옛 서울 공주는 계룡의 자락에 안겨 錦江에 면한 고을이었다.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계룡산 천황봉의 천단(天壇)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유서가 깊은 유적이다. 고대에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5악 가운데 서악(西嶽)이었고, 조선시대에는 금강변의 웅진사(熊津祠)와 함께 국가에서 주관한 山川祭의 대상이었다.

### 五嶽의 한 곳, 鷄龍山

우리는 종종 주변을 아우르는 명산에 흠모스럽게 솟은 시설들을 보게 된다. 천황봉 정상에도 통신탑이 있었다. 통일신라 때 五嶽 가운데 하나였던 이곳 또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산수가 아름다운 우리 나라는 역사적 유적들이 명산 주위에 산재한다. 계류가 흐르는 山寺와 書院·祠宇, 능선을 휘감는 山城, 그리고 바위에 새겨진 石刻은 모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이다.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는 반드시

체력을 단련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고찰을 찾으면 마음까지 서늘해지고, 선대의 유적이 마주 대하면 저절로 고개 숙여지게 된다. 그런 까닭에 굳이 먼 곳에 있는 명산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산을 오르는 도중에 길이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러 이유로 통행이 통제되는 까닭이다. 얼마 전까지도 계룡산 또한 마지막 정상을 앞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국가의 보호시설인 탓에 옆 봉우리에서 다만 천황봉을 건너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천단세워 충청인 자존심 회복

그런 가운데 최근 계룡산은 곧 충청인의 상징이요, 또한 유서 깊은 역사적 유적이라는 여론이 일게 되었다. 천황봉 복원공사는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추진된 것이다.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일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본인이 재직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 의하면, 계룡산 천황봉 정상부에 통일신라 이후 조선시대에 걸친 기와조각들이 수습되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국가 제사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옛 자취를 보존하자는 의견이 돌았고, 마침내 '天壇'이라는 表石을 세우게 된 것이다. 글씨는 조선시대 충청도가 배출한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선생의 것이다. 그리고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훼손을 야기하지는 말자는 의견을 좇아서 표석과 함께, 봉우리 아래에 유래비(由來

碑)를 건립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 끝나지 않은 계룡산 보전

이제 천황봉 복원공사와 함께 계룡산 길은 정상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계곡에 위치한 동학사, 감사, 신원사 등에서 시작한 발길이, 천황봉 천단에 이르러 끝을 맺게 된 것이다.

사실 계룡산은 그 자체가 문화유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학사 입구에는 사육신 등 역대 충절인들을 모신 숭모전(崇慕殿)이 있고, 신원사 옆에는 조선시대 말 鷄龍山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중악단(中嶽壇)이 있다.

현재는 터와 함께 당간지주만 남아 있는 상신리 구룡사지 또한 관심의 대상이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라 역사 탐방객 또한 관심을 둘 만한 대상이다. 그러한 까닭에 이미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다.

이제 천황봉 천단 복원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계룡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방치된 채로 남은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정비된 유적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또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

앞으로는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종전처럼 천황봉 정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비된 유적들은 현재의 전통으로 살아 숨쉬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가 전문 연구자의 일이라면, 후자는 청년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의무가 될 것이다.